

근대에 재현되는 고대 설화*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모모타로(桃太郎)』를
중심으로 -

박 미 경**

bmkpark@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사자나미와 『소년세계』 |
| 2. 사자나미와 『桃太郎』 | 5. 사자나미와 『모모타로주의 교육론』 |
| 3. 사자나미와 『日本昔噺』 | 6. 결론 |

Key word : 이와야 사자나미(Iwaya Sazanami), 설화(traditional tales), 동화(fairy tales), 근대(modernity), 모모타로(Momotaro), 제국주의(imperialism)

1. 머리말

근대는 서양의 근대적 문물의 수용과 응용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현상은 오히려 전통문화의 범주에 속할 고전이 새롭게 주목되고 재탄생하는 한편 세속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인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고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근년 학계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근대 국민국가 성립과 고전 형성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0157)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일본고전문학

1)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하루오 시라네, 스킵 토미 엮음 왕숙영 옮김(2002)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品田悦一(2001) 『万葉集の發明一』

19세기 후반 독일은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괴테의 작품을 다양한 가치관과 결부시켜 고전으로 재구축했고, 영국은 1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자국의 영문학을 고전의 자리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일본 역시 고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19세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고전으로 손꼽힌 것은 사서삼경(四書三經)과 같은 중국의 고전이였다. 하지만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중국의 고전은 배제되었고 일본인에 의한 작품을 고전으로 재창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루오 시라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일본에서 대표적인 일본문학으로 손꼽히며 일본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사기(古事記)』, 『만엽집(萬葉集)』, 『마쿠라노소시(枕草子)』, 『헤이케이이야기(平家物語)』, 『겐지이야기(源氏物語)』 등의 작품들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 고전문학의 정전으로 자리매김된 것은 불과 백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²⁾.

그런데 이처럼 국민국가의 통합을 위해 근대시기에 소환된 고전은 과거의 고전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등의 필요에 따라 과장과 왜곡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구성된 고전에 새롭게 ‘신성한’ 가치와 권위가 부여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시기에 나타난 이러한 고전의 부활과 동일한 현상이 비단 고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속에는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세계관 등이 담겨 있다. 독일의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일찍이 그림 형제가 설화를 채록하고 연구했던 것과 같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모방한 일본 역시 설화를 자국의 민족적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문화 속에서 일본의 설화 등이 근대 시기에 국민화를 위한 장치로써 어떻게 새롭게 발견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공간으로 소환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설화와 같은 전승이 근대 공간으로 어떻게 재탄생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國民國家と文化装置としての古典— 新曜社,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2) 하루오 시라네, 스즈키 토미 유희, 왕숙영 옮김(2002)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pp.3-10

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일본 설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 설화중의 하나인 『모모타로』이야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모모타로』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한편 그림책, 아동문학, 교과서, 근대연극 등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 에도시대 구사조시(草雙紙)에도 자주 등장하여 다양하게 전해져 온 모모타로 이야기는 메이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에 의해 재등장한 이후로 많은 작가에 의해 다시 작품화되었고 모모타로의 모습도 계속 수정되면서 그 시대에 맞는 모모타로상을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하필 일본의 수많은 설화 중에서도 『모모타로』이야기와 같은 모티브의 선택적인 부각은 왜 일어났을까?

본 논문에서는 『모모타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일찍이 재구성하여 근대의 소년 소녀들에게 전달한 이와야 사자나미라는 아동문학자에 주목하여 그의 『모모타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설화가 근대시기에 어떻게 재구성되어 텍스트화 되었으며 이 시기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국민화 교육에서 이러한 설화가 담당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이것이 어떻게 민족정신과 공통의 기억을 창출해 나갔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사자나미와 『桃太郎』

1) 이와야 사자나미에 대하여

이와야 사자나미(1870~1933)는 조상 대대로 지방의 번(藩)에 근무하는 의사가문인 번의(蕃醫)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사자나미에게 가업을 잇게 할 생각으로 그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독일어를 배우게 하였고 관련 학교에 입학할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사자나미 자신은 가업인 의사의 길보다는 좋아하는 문학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여 결국 어렵게 집안의 허락을 얻어 18세에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켄유사(硯友社) 동인

이 되어 오자키 코요(尾崎紅葉), 이시바시 시안(石橋思案), 가와카미 비잔(川上眉山) 등과도 교류를 가지며 전유샤의 기관지 <가라쿠타분코(我楽多文庫)>에 처녀작 『오월 잉어(五月鯉)』를 발표한다³⁾. 22살인 1891년에는 일본 최초의 창작 아동 소설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고가네마루(こがね丸)』를 발표하여 큰 호평을 얻는다. 이후 1933년에 구연동화 활동을 하다가 쓰러지기까지 약 40년간 사자나미는 근대 아동문학의 최선두에서 활약했다. 그는 창작 동화를 집필하는 한편 일본 및 세계의 옛날이야기를 재화(再話)하여 아이들에게 소개했는데, 대표적인 작업으로 『日本昔噺』(1894~1896) 전 24편, 『日本お伽噺』(1897~1898), 『世界お伽噺』 전 100편(1899~1907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박문관(博文館)에서 출판되었는데 당초 12권으로 예정되어 있던 기획이 24권으로 변경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⁴⁾. 또한 사자나미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독일에서 일본어 강사로도 일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 1906년부터는 1933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동화 구연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본 최초의 소년잡지 『소년세계(少年世界)』(1895년 1월)의 주필로 활약하는 등 일본의 아동문학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⁵⁾.

2)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소재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자나미는 『日本昔噺』시리즈를 간행하는데 이 시리즈에 대해 나메카와 미치오(滑川道夫)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전승되어 오던 옛날이야기를 근대적인 아동의 읽을거리로 재편성한 최초의 작품으로 불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자나미가 개발한 <오토기바나시(옛날이야기)> 세계의 개막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⁶⁾

-
- 3) 葛原しげる(1933) 『巖谷小波先生』 『幼児の教育』33-10 pp.34-45
 - 4) 上田信道(2001) 『日本昔噺』 『解説』 平凡社東洋文庫
 - 5) 桑原三郎, 千葉俊二編(1992) 『日本児童文学名作集(上)』 岩波書店
 - 6) 滑川道夫(1981) 『桃太郎像の変容』 東京書籍 p.62 ※이하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어 원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사자나미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시리즈의 제1편에 모모타로 이야기를 채택하여 『모모타로(桃太郎)』를 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설화 『모모타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져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모모타로』라는 설화 자체에 있지 않고 근대라는 시기에 재해석되어 재탄생된 『모모타로』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비교적 최근의 성과들 가운데 관련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모모타로』 이야기의 시대별 변천 과정 및 구체적인 변모 양상에 대해 분석한 대표적인 업적으로 나메카와 미치오(滑川道夫)⁷⁾, 도리고에 신(鳥越信)⁸⁾, 오후지 미키오(大藤幹夫)⁹⁾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하 이들 연구자들은 사자나미의 『모모타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나메카와 미치오는 사자나미의 『모모타로』가 도깨비 정벌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황국 일본에 해를 가하는 못된 놈”이기 때문에 정벌하러 간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에도 시기의 국학자 계열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메이지 정부가 내세운 황실주의의 교학 사상에 동조하는 방향에서 ‘모모타로상(像)’을 그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자나미는 후에 이 부분을 고쳐 써서 명랑하고 활달한 모모타로 상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적어도 이 메이지 27년(1894) 시점에서 『모모타로(桃太郎)』는 신격화되어 황국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교육칙어 하사, 그리고 그 보급에 힘을 쏟던 당시의 배경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7월에는 출병한 일본군이 조선 왕궁을 점령하고 무장을 해제시켰고, 8월에는 청나라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했다. 청일전쟁이라는 전시색도 강해지는 정세가 그 배경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

7) 滑川道夫(1981) 『桃太郎像の変容』 東京書籍 pp.52-86

8) 鳥越信(2004) 『桃太郎の運命』 ミネルヴァ書房 pp.1-243

9) 大藤幹夫(2002) 『岩谷小波『桃太郎』異稿考』 pp.17-38 등. 「『ももたろう』絵本考」 『学国文』41 1998 pp.49-71)에서 최근의 「2000年-2009年における『桃太郎』話の読み方・読まれ方」(『大阪国際児童文学振興財団研究紀要』30 2017 pp.33-45)까지 일련의 관련 논문이 있음.

10) 滑川道夫(1981) 위의 책 p.65

라고 지적한다. 즉,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에는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군국주의, 제국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리고에 신(鳥越信) 역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 아래 1890년에 내려진 교육칙서에 의해 그 이념을 완성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사자나미의 『모모타로』가 탄생한 그 해에 제국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모모타로 이야기는 안성맞춤인 소재였다. 원래 전승된 모모타로에는 결말부에서는 결혼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깨비를 퇴치한다는 무용담만 클로즈업되어 <중략> 모모타로 이야기는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기수로 자리매김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자나미의 『모모타로』는 <중략> 미문주의(美文主義)에 얽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을 무비판적으로 찬미하는 “황국의 아이(皇国の子)”로서의 모모타로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모모타로像이 형성되는 데에 유형, 무형의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¹¹⁾

요컨대 종래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의 이미지는 당시 시대적으로 고조되어 있던 황국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자나미를 제국주의와 결부시킨 종래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는데 오후지 미키오¹²⁾, 후지모토 요시노리(藤本芳則)¹³⁾ 등의 입장이 그러하다.

오후지 미키오는 사자나미의 『모모타로』(1894년)를 1903년의 교정판과 비교해 보면 작품 속 모모타로의 이미지가 변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동시에 충군애국이 강조되는 시기에 제국주의, 침략주의적 요소가 제거되고 있을 정도이니 사자나미를 ‘황실중심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오후지의 이러한 주장을 더욱 발전시킨 후지모토 요시노리는 사자나미가 에도 시대의 『모모타로코덴(桃太郎子伝)』을 참고로 『모모타로』를 집필했다고 추정한다.¹⁴⁾ 이와 더불어 후지모토는 종래에 문제시되어 온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에 보이는 “皇神의 皇化에 따르지 않고”라는 표현 역시 사자나미가 참고로 한 원전

11) 鳥越信(2004) 위의 책 pp.15-16

12) 大藤幹夫(2002) 『岩谷小波 『桃太郎』 異稿考 pp.17-38 등.

13) 藤本芳則(2017) 『巖谷小波 『桃太郎』と 『桃太郎子伝』 『児童文学研究』50 pp.31-45

14) 藤本芳則(2017) 위의 논문 pp.37-40

텍스트 『모모타로코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표현에 “어디까지 사자나미의 내면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요컨대 황국주의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¹⁵⁾. 나아가 작품에 있는 황국주의적인 요소를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작자의 의식에 직결한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¹⁶⁾”고 거듭 주장하며 사자나미의 『모모타로』가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국가주의적, 황국주의적인 기운에 의해 탄생된 작품이라는 종래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근년의 연구는 사자나미의 『모모타로』를 제국주의적 이념과 연관 지어 비판하던 이전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후지모토의 주장처럼 사자나미가 자신의 인식이나 의식과 무관하게 그저 에도시대의 『모모타로코텐』을 참고로 집필한 결과가 『모모타로』라고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남는다.

흥미로운 것은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속 제국주의적 요소를 비판하는 도리고에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사자나미의 모모타로는 단순히 지(智)·용(勇)·인(仁)이 빼어난 소년 무사일 뿐 아니라 천황이 다스리는 신국(神國) 일본의 사자의 신분으로 도깨비섬을 향해 나아가, 천황의 이름으로 도깨비를 정복하는 황국의 아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는 오직 작자 사자나미만의 ‘모모타로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시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¹⁷⁾.

일본의 아동문학의 창세기에 등장한 모모타로가 공통적으로 “황국의 아이”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은 이들 작가들에게 확고한 모모타로관이 있어서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당대의 일인자, 대스타이자 아동문학과의 관련이 가장 깊어 주변이나 후속 작가들에게 미친 지대한 영향력이라는 점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와야 사자나미인데 이런 사자나미 역시 『모모타로』를 통해 표현한 황국의 아이관을 평생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는 믿기 어렵다¹⁸⁾.

15) 藤本芳則(2017) 위의 논문 p.42

16) 藤本芳則(2017) 위의 논문 p.43

17) 鳥越信(2004) 위의 책 p.15

18) 鳥越信(2004) 위의 책 p.28

이상과 같이 대개 일본의 연구자들은 사자나미의 『모모타로』 속에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하되 그것을 작가가 전생애에 걸쳐 확고한 인식 내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일탈이나 오점 또는 시대적 반영(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정도로 처리하여 일본아동문학의 대가로서의 사자나미가 갖는 의미 구조는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모모타로』속 내셔널리즘적 표현은 작가 사자나미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그의 생애의 한 순간에 국한된, 단순히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에 불과한가?

3. 사자나미와 『日本昔噺』

각각의 문제 설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자나미의 『모모타로』를 평가하는 최근의 연구자들의 견해가 대개 여전히 천황주의적이나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현상에 머물러 있음은 앞에서 확인한 대로이다. 즉, 작가론적 측면에서 볼 때 사자나미를 천황주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작가로 볼 것인가, 잠시 시대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과오는 있었지만 한평생 천황주의를 지향한 작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가를 두고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연구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와 관련된 일종의 개념체로 드러나는 作家(者)¹⁹⁾ 라고 할 때, 오히려 작가의 삶과 문학은 매번 새롭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가 될 것²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모타로』를 제1편으로 편성하고 있는 『日本昔噺』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천착해 보도록 하겠다.

『모모타로』속 제국주의적 표현으로부터 사자나미를 분리하고 불식시키기

19) 우한용(1986) 「문학교육과 작가론」 『국어교육』55·56호 p.158

20) 조은숙(2011) 「이원수의 친일 아동문학과 작가론 구성 논리에 대한 재검토」 『우리어문 연구』40집 p.552

위해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후지모토는 사자나미가 자신의 인식이나 의식과 무관하게 그저 에도시대의 『모모타로코덴』을 참고로 집필한 결과가 『모모타로』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한지 주목해 보겠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승되어 오던 옛날이야기를 근대적인 아동용 읽을거리로 재편성한 최초의 작품으로 불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¹⁾”는 평가를 받고 있는 『日本昔噺』의 전체적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편	제목	발행연도
1	『桃太郎』	1894·7·11
2	『玉の井』	1894·8·5
3	『猿蟹合戦』	1894·9·4
4	『松山鏡』	1894·10·24
5	『花咲爺』	1894·12·10
6	『大江山』	1895·1·28
7	『舌切雀』	1895·2·20
8	『俵藤太』	1895·3·23
9	『かちかち山』	1895·5·11
10	『瘤取り』	1895·6·14
11	『物臭太郎』	1895·7·25
12	『文福茶釜』	1895·8·12
13	『八頭の大蛇』	1895·9·10
14	『兎と鱷』	1895·10·11
15	『羅生門』	1895·11·18
16	『猿と海月』	1895·12·15
17	『安達ヶ原』	1896·1·15
18	『浦島太郎』	1896·2·25
19	『一寸法師』	1896·3·15
20	『金太郎』	1896·4·23
21	『雲雀山』	1896·6·2
22	『猫の草紙』	1896·6·20
23	『牛若丸』	1896·7·13
24	『鼠の嫁入』	1896·8·20

21) 滑川道夫(1981) 위의 책 p.62

전체 24편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살펴보면 그 출전이 구전되어 오던 설화뿐 아니라 『고사기』, 『일본서기』, 『풍토기』, 『헤이케모노가타리』, 『우지슈이모노가타리』, 『오토기조시』 등으로 문헌 형태로 전해져 온 신화나 전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의 시대와 장르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패턴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떤 영웅적 행위를 거쳐 부나 명성, 지위 등을 얻게 되는 이야기인데, 1, 5, 6, 9, 11, 14, 19, 20, 21, 23편 총 10개의 이야기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후지모토는 『모모타로』속 제국주의적 표현은 원전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추정하면서 그러한 표현 속에서 작자 사자나미의 내면을 보려고 하거나 이를 작자의 의식과 직결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지만 『日本昔噺』의 이야기들을 검토해 보면 작자 사자나미가 아무런 의식이나 의도 없이 그저 기존의 전승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요컨대 『日本昔噺』의 이야기 속에는 메이지 국민국가에 어울리는 근대적 윤리관에 비추어 기존의 전승들을 이에 걸맞도록 적절히 변개하여 재배열한 흔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²²⁾.

예를 들어 모노쿠사타로의 경우도 그러하다. 원래 『오토기조시』속 모노쿠사타로는 게으름뱅이에 꼴불견인 남자로 등장하며, 도움지로 나와 대담언을 모실 때는 열심을 다했지만 정작 이러한 노력은 그의 출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의 출세는 어디까지나 그가 도움지로 나와 운 좋게 갖게 된 한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원래는 고귀한 신분임이 드러나면서 출세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사자나미의 『日本昔噺』속 모노쿠사타로는 원텍스트에서는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그의 출세와도 직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배제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바쳐 주인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고 시가를 읊는 재능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결국 사자나미는 게으르고 나태한 주인공이 도움지로 나와 신선한 자극을 받아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개심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고 이러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출세로 이어졌다는 성공담의 주체로 모노쿠사타로를 재탄생시킴

22) 久米依子(2004) 『巖谷小波 『日本昔噺』の近代性—国民国家時代と昔話のイデオロギ—』 『文学研究(日本文学研究会)』90 pp.1-12

으로써 근면, 성실 등의 근대적 가치관을 장려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자나미는 기존의 전승 설화들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근대 사회의 규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개변하여 근대적인 가치관을 전하는 이야기로 재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모모타로라는 전승 역시 메이지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저명한 아동문학자였던 사자나미에 의해 기존의 전승문화재 속에서 용의주도하게 취사선택되어 근대국가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텍스트 『모모타로』로 재탄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사자나미와 『소년세계』

다음으로는 『모모타로』속 내셔널리즘적 표현이 과연 작자 사자나미 자신의 황국주의 사상과 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사자나미는 『모모타로』에서 모모타로의 입을 빌어 자신이 도깨비섬을 정벌 하러 가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래 이 일본 동북쪽 바다 멀리 떨어진 곳에 도깨비가 사는 섬이 있습니다. 그 도깨비는 마음이 사악하여 우리 황신(皇神)의 황화(皇化)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아시아라국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잡아먹고 보물을 빼앗는, 참으로 못된 놈들이기에 저는 지금 바로 출진하여 그 놈들을 단박에 제압하여 모아놓은 수많은 보물을 남김 없이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모타로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 역시 “도깨비들을 퇴치하고 화를 제거하여 황국(皇國)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화답한다. 바로 이 부분에 보이는 “皇神”, “皇化”, “皇國”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사자나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국주의 사상에 몰들”었다거나 “내셔널리즘을 무비판적으로 찬미”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존의 비판의 근거로 회자되어온 이들 표현 외에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온, 모모타로의 “아시하라노쿠니(芦原の国)”라는 표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하라노쿠니”는 오키나누시노카미(大國主神)가 만든 지상에 있는 나라로, 풍부한 수확이 영원히 계속되며 벼가 잘 자라는 나라라는 의미로 고대 일본을 칭송하여 일컫는 말이다. 『고사기』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아시하라노쿠니는 마땅히 황조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할 나라라는 논리로 일관되어 있다. 이에 아마테라스의 명을 받아 그 통치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삼종신기를 가지고 지상에 강림한 것이 천손(天孫) 니니기노미코토이고 이후 현재까지 그 혈통을 이은 천황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므로 이렇게 보면 일본은 과연 할아버지의 말처럼 “황국”인 것이다.

이하 『모모타로』속 내셔널리즘적 표현은 작가 사자나미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그의 생애의 한 순간에 국한된, 단순히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에 불과한지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소년세계(少年世界)』는 1895년 1월에 박문관에 의해 창간된 일본 최초의 소년잡지이다. 그런데 이 잡지의 주필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일본의 아동문학을 창시한, 일본의 근대 아동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이와야 사자나미였다. 사자나미는 『모모타로』발간에 이어 이듬해 잡지 『소년세계』를 창간했다. 간행 첫해부터 기록적인 판매 부수를 자랑할 정도로 『소년세계』는 창간 이후 1933년에 폐간되기까지 30년간 메이지기의 수많은 잡지 중에서 일본의 근대 아동문학의 중심으로 군림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락속에 양덕(良德)을 기르고 유쾌함 속에서 명지(明智)를 얻게 하겠다(娯樂の間に良德を養い、愉快の裡に明智を得せしむべし)”는 각오하에 출발한 잡지 『소년세계』의 발행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잡지의 창간호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면의 대부분을 옛날이야기가 차지했던 『소년세계』창간호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황국주의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천황 폐하를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되어 이어지는 논설 <메이지 28년을 맞이하여(明治廿八年を迎ふ)>에서는 청일 전쟁을 찬양하면서 어린이 독자들을 “이 명예로운 신강국의 소국민(此の名譽ある新強国の小国民)”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특히 창간호에 실려 있는 사자나미의 소설 <히노마루>는 국기를 의인화하여 청일전쟁을 우화화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작품으로 주목된다. 이 작품을 통해서 사자나미는 소년들에게 천황을 위해 전장에 나가도록 고취함과 동시에 널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자나미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우월감을 강조하여 소년들에게 국가의 위상과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고 하겠다.

『소년세계』 창간호의 애국의식 고취와 전쟁 찬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계지리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 코너에서는 “사천구백만 마일에 달하는 지구에서 우리 일본인만큼 명예로운 민족은 없다(四千九百萬方哩の地球に於て、我日本人ほど名譽なるものはあらず)”라거나 “청일전쟁은 우리 소년을 세계의 무대에 올려 지식을 갈고 닦게 하기 위해서(日淸の戰爭は、吾等少年を世界の舞台に上せて、其智識を研かじめんとす)”라는 기술이 보인다.

“史傳”이라는 역사 코너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무몽구(英武蒙求)>,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등장시켜 조선 침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온 신공황후의 <삼한정벌(三韓征伐)> 이야기, 나아가 나폴레옹 전쟁을 테마로 한 <트라팔가 해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문학 코너에서는 소년들에게 청일전쟁의 전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어서 행복한 기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신문, 잡지 등의 문장 덕분에니 문장력을 연마하라고 주문한다.

이와 같이 잡지 『소년세계』 창간호는 과학, 역사, 문학 코너를 불문하고 애국이나 전쟁 관련 요소가 없는 기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국주의를 그대로 표방하고 있다. 이쯤 되면 창간 이래 일본의 근대 아동문화의 중심으로 군림했던 대표적인 아동잡지라 할 수 있는 『소년세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뚜렷하고 그 영향력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필 이와의 사자나미가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작품을 작가의 신원과 직결해서 해석하는 일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작가가 몸담은 동인 조직 단체와 그 활동상이라든지 문단 교유 관계 등은 창작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내 좁은 식견으로는 모모타로의 도깨비 정벌에 커다란 이유를 댈 것은 메이지 27년(1894) 7월에 박문관에서 간행된 이와야 사자나미의 『日本昔噺 桃太郎』입니다. 바야흐로 청일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의 전의(戰意)가 상당히 고양되어 있었고, 스물 네 살의 이와야 사자나미도 크게 이 물결에 편승했습니다.²³⁾

수많은 옛날이야기 가운데 모모타로 이야기를 제1편으로 선정하고 더욱이 위의 구와바라(桑原)의 지적처럼 기존에 없었던 도깨비 정벌의 목적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였다는 점과 더불어 청일전쟁의 승리가 점쳐지던 시기에 사자나미가 주필이 되어 간행된, 황국주의 일색인 아동잡지 『소년세계』의 창간호를 종합해 생각해 보면 역시 『모모타로』속 내셔널리즘적 표현이 작가 사자나미의 의식과는 무관하거나 단순히 일시적으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5. 사자나미와 『모모타로주의 교육론』

사자나미는 1894년에 『日本昔噺 桃太郎』를 간행한 지 거의 10년만인 1903년에 교정판 『校訂日本昔噺 桃太郎』²⁴⁾를 출간했다. 교정판 『모모타로』에서는 기존의 천황주의적 표현이 수정, 삭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사자나미가 사상적으로 군국주의를 긍정했다고 비판한 연구자²⁵⁾들도 그가 『모모타로』를 통해 나타낸 군국주의 이념을 평생 가지고 있었을 리 없다고 보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여기서는 교정판 『모모타로』로부터 다시 10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 1915년에 쓰여진 『모모타로주의의 교육(桃太郎主義の教育)』²⁶⁾에 주목하고 싶다.

23) 桑原三郎(1996) 『福沢諭吉と桃太郎』 慶應通信 p.13

24) 巖谷小波(1903) 『校訂桃太郎』 英学新報社 pp.1-22

25) 이러한 입장은 전술한 나메카와, 도리고에의 공통된 인식이다. 예를 들어 도리고에는 “『모모타로』를 빌어나타낸 황국의 아이관을 평생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桃太郎』に托した皇国の子観を終生持ち続けているとは信じがたい。)”(『桃太郎の運命』 28쪽)라고 말한다.

더욱이 그 도깨비섬 정벌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다가 지금까지 특별히 도깨비섬으로부터 아무런 침해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정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군자의 눈으로 보면 딱히 명분도 없는 전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모타로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도깨비섬을 퇴치하여 보물을 빼앗아오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유, 목적도 없는 점이 또한 순수해서 좋다.²⁷⁾

위의 인용은 모모타로의 도깨비섬 정벌에 대한 『모모타로주의의 교육』에서의 사자나미의 발언이다. 아무런 위해를 가한 적도 없는 도깨비들을 상대로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오로지 보물을 빼앗아 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목적도 없는 모모타로의 도깨비섬 침략 행위를 “순수해서 좋다”고 긍정하고 있는 대목이 결코 낯설지 않다.

이 책에서 사자나미는 바로 이러한 모모타로를 바람직한 교육적 이상으로 보고 ‘모모타로주의의 교육’을 제창하고 있다. 시즈키하시 다쓰오(続橋達雄)는 사자나미가 제창한 모모타로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자나미는 ‘일본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임을 자각하라. 동시에 세계의 일본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강조한다. 일본인의 자각이란 충군애국의 신민이라는 것이고, 세계의 일본인이란 상무, 모험이 탁월한 대범한 인물로서 일본의 국위를 해외에 드높이는 삶을 가리킨다. 그의 개구쟁이주의, 대담한 개발(開發)주의 등을 운운하는 <모모타로주의>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²⁸⁾

이렇게 보면 『모모타로』속 사자나미의 군국주의적 색채는 작자 자신의 인식에 의거해 발현된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전쟁에 대해 언급한 사자나미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의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정의라는 이념은 올바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박애라는 마음은 동정하는 것이

26) 巖谷小波(1915) 『桃太郎主義の教育』 東亜堂 pp.1-356

27) 巖谷小波(1915) 위의 책 p.51

28) 続橋達雄(1972) 『児童文学の誕生—明治の幼少年雑誌を中心に—』 桜楓社

다. 그렇다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상황이고 사정이고 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자가 있다고 하자. 이를 방치하고 두면 본인은 점점 오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더욱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나서서 이를 응징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대항해 온다. 그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의 전쟁은 물론 정의로운 전쟁이다. 또한 여기에 약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강한 나라가 괴롭힌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도우러 나선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경우도 정의로운 전쟁이다²⁹⁾.

<전략> 모든 박애 행위는 이미 우리 일본이 중국, 러시아, 독일을 상대로 3차례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때마다 반복했던 일이다. 이를 목격한 세계가 일본을 동양의 군자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³⁰⁾.

사자나미가 메이지기 들어 일본이 벌인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을 곤란에 빠져 있는 힘이 약한 나라를 돕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모모타로는 이들 전쟁을 거치면서 외국과 싸워서 이기는 강한 일본의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으로 발전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옛날이야기가 되었고 사자나미는 이 모모타로 이야기를 국가 교육의 기초로 삼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자나미는 기존의 전승을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에 걸맞는 가치관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근대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재정립한 것이다. 결국 『모모타로』에 대한 통념의 대부분은 이와야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의 굴절과 관련이 깊다. 이것은 그만큼 초창기 사자나미의 『모모타로』의 몫이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6. 결론

일본의 근대는 ‘개인’보다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이 우선되던 시기였다.

29) 巖谷小波(1915) 위의 책 pp.153-154

30) 巖谷小波(1915) 위의 책 pp.155-156

개인의 삶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근대화의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했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던 것이 근대라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견된 동화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강요당 하는 근대의 삶에 대의명분을 제공하여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기에 중요한 장치중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모모타로 이야기는 막말기 개항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3차례의 대외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의를 고취하기 위한 선전에 이용되어왔다. 그 결과 본래는 고대 전승에 불과했던 모모타로 이야기가 국가와 국민을 상징하는 존재로 재탄생되어 군국주의의 선전으로 이용당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시작에 사자나미의 『모모타로』가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자나미는 일본의 아동문학을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아동용 잡지 발간, 아동용 위한 동화 구연, 동화극극 창작 등의 수많은 활동을 통해 메이지기의 아동문학을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동시에 아동문학에 정치적 내셔널리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 장문석 옮김(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오구마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우한용(1986) 『문학교육과 작가론』 『국어교육』55·56호 p.158
 이재우(2012) 『메이지 초기 옛날이야기의 위상』 『일본연구』13 pp.249-273
 조경숙(2011) 『메이지기 아동잡지 『소년세계』와 조선』 『일본학보』89 pp.191 -204
 조은숙(2011) 『이원수의 친일 아동문학과 작가론 구성 논리에 대한 재검토』 『우리어문
 연구』40집 pp.545-585
 하루오 시라네, 스즈키 토미 엮음 왕숙영 옮김(2002)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巖谷小波(1894) 『日本昔噺 第一編 桃太郎』 博文館
 _____(1903) 『校訂日本昔噺 第一編 桃太郎』 英学新報社
 _____(1915) 『桃太郎主義の教育』 東亜堂 pp.153-156
 大藤幹夫(2002) 『巖谷小波 『桃太郎』異稿 考』 『学大國文』45 pp.17-38

- 加原奈穂子(2011)「昔話の主人公から国家の象徴へー『桃太郎パラダイム』の形成」
『東京芸術大学音楽学部紀要』36 pp.51-72
- 葛原しげる(1933)「巖谷小波先生」『幼児の教育』33-10 pp.34-45
- 久米依子(2004)「巖谷小波『日本昔噺』の近代性ー国民国家時代と昔話のイデオロギー」
『文学研究(日本文学研究会)』90 pp.1-12
- 桑原三郎(1996)『福沢諭吉と桃太郎』慶應通信 p.13
- 続橋達雄(1972)『児童文学の誕生ー明治の幼少年雑誌を中心にー』桜楓社 pp.1-312
- 立石展大(2011)「昔話の変遷ー『桃太郎』を例としてー」『立教女学院短期大学紀』42
pp.1-16
- 藤本芳則(2017)「巖谷小波『桃太郎』と『桃太郎子伝』」『児童文学研究』50 pp.31-45
- 品田悦一(2001)『万葉集の發明ー國民國家と文化装置としての古典ー』新曜社
- 三浦佑之(2004)「巖谷小波と古事記」『大阪大学日本学報』23 pp.27-38
- 柳宗伸(2005)「おとぎ話にみる文化ナショナリズム:雑誌『少年世界』の巖谷小波のおとぎ話分析」『言語・地域文化研究』11 pp.161-181
- 山本稔(2003)「巖谷小波研究(1):小波の二つの『桃太郎』について」『滋賀大國文』41
pp.126-135

접 수 일: 2020년 07월 16일

심사완료: 2020년 07월 24일

게재결정: 2020년 07월 30일

<Abstract>

Ancient narratives reproduced in modern times

—Focusing on Iwaya Sazanami’s “Momotaro”—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ancient Japanese narratives, namely folktales, were re-discovered as a device to promote nationalism in the Japan modern era.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ole of these traditional narratives and cultural shift during the Japanese modern era, which was referred as the “Modern Period of Knowledge”, highlight how these texts were reintroduced in the height of the 19th century and played both political and social rol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modern nation-state

One such relevant ancient narrative is Momotaro, which was one of the most well-known folktales written by Iwaya Sazanami. With research it can be concluded that Momotaro was reconstructed and reproduced in the Japanese modern era and helped establish a sense of nationalism and community sentiment during this period.

As a result, Sazanami not only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children’s literature during the Meiji era through publishing of children’s magazines, but also through popularization of theater to build political nationalism through literary culture.